

# 함평축협,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大賞

### 조합원 소득 증대 목표로 왕성하게 활동 표창장 수상과 특전으로 20억 자금 지원

함평축협이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 중앙회가 주관하는 2019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종합평가에서 축협 부문 전국 1등을 차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번 평가는 조합원 축산지도를 비롯한 방역, 나눔축산, 농업인 실익지원 부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평축협은 전 부문을 통틀어 최고 득점을 획득하였다.

금번 수상에 따라, 축협에는 농

협양회장 명의의 사무소 표창장 무이자자금 20억원이 지원되며, 지도·경제사업에 근무하는 공로직원에게 4급 특별승진의 특전도 주어지게 된다.

함평축협 김영주 조합장은, “금번 수상으로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그간 축협이 수행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다른 어떤 수상보다 큰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축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이



용하여 주시고, 항상 든든하게 성원해 주신 조합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값진 결과로서 이 모든 영광을 조합원님들께 돌려드리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수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 1천만 관광시대 개막

김종식 목포시장이 20일 열린 제35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2019년은 1천만 관광객을 달성하는 초석을 놓는데 총력을 다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8,22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389억원의 11.27%인 833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7,434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6,555억원의 13.42%인 879억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2019년 본예산 834억원의 5.58%인 46억원이 감액된 788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복지 향상, 관광 편의시설 및 인프라 구축,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이촌뉴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이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보다 403억원이 증가한 3,518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7.33%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경제·환경 부문에는 80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 등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435억원을, 도시재생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건설 부문은 99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 상하수도 부문에 666억원을, 보건 부문에 153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시는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으로 ▲ 1천만 관광시대 개막에 행정력 집중 ▲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시민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까운 섬 ▲ 더 따뜻한 목포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2020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주요정책과 목포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중심에 놓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편성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거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무안군,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 당부

### 특별대책반 수립해 주민 불만 해소 예정

무안군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20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상황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대행업체를 비롯해 2개반 24명으로 구성되어 한파기간중 수도계량기 동파, 상수도관 동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펼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군은 군민들이 미리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통, 수도요금 고지서,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동파예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해 한 옷 등의 보온재로 계량기 통을 채워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동파를 예방하여야 하며,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을 이용해 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강진군, 귀농인 재능기부로 함께하다

지난 19일 군동면에서 작두콩을 재배하고 있는 강진 도깨비농장 대표 송용기, 홍여신 부부가 ‘SNS 마케팅 기술’을 주제로 지역 농업인 20명이 함께 한 가운데 재능기부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대형 오프라인 마트들의 폐점 소식이 보도되며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열대 과수, 특수 채소 등 아직 소비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농·특산물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농촌 지역 농업인들의 경험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농 5년차 강진도깨비농장 송용기, 홍여신 부부가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송용기, 홍여신 부부는 전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험을 강진 지역 농업인들과 나누기 위해 재능기부에 함께했다.

송용기 강진도깨비농장 대표는 “귀농 초기 작물 선택 실패로 큰 낭패를 겪기도 했지만 작물 재배 성공 이후에도 판로 확보를 위해 좌충우돌 험겨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웠다. 재능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이 서로 거리감 없이 한데 어울려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조기 정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산로 주변 청소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공직자, ‘힐링캠프’ 통해 재충전

완도군은 지난 4일, 1기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19 완도군 공직자 힐링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힐링 캠프는 바쁜 업무로 인해 쌓였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간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통해 재충전 기회 제공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1박 2일간 진행된 캠프에서 첫째 날에는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자 요가와 명상을 하고, 직원들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서플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둘째 날에는 여수시의 해양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등을 체험하고 오동도를 다녀오는 등 지역 문화 탐방과 함께 관광 상

품에 대한 벤치마킹까지 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힐링캠프는 업무 연장이 되지 않고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름 그대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캠프 내내 활기가 넘치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8일에 운영된 3기 힐링캠프에서 참석해 “2019년도에만 43건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560억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 한해 도 군민과 군을 위해 힘 없이 달려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농협 장흥군지부, 표고버섯 수확 봉사

농협 장흥군지부는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해 표고버섯 수확작업에 고생하는 농가를 도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협 장흥군지부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일손이 필요한 표고버섯 농가의 수확

을 도왔다. 장흥군 지부 직원 김도일 씨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뜻 깊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기회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